Ⅱ. 보험시장

1. 주요지표

■ FY2013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손해보험 성장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였음.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어 8.0% 감소함.
-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둔화로 4.2% 증가에 그침.

■ 2014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3.7% 증가가 전망됨.

- 2014년에는 저축성보험 수요가 부진할 것이나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 보험 확대전략 등에 힘입어 2.4% 증가가 전망됨.
- 2014년에는 장기 저축성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5.8% 증가가 전망됨.

표 Ⅱ-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1]		2014(F) (기존전망)		2014(F)[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115.3	31.3	77.2	−8.0	117.1	4.4	111.1	2.4
손해보험	68.5	12.4	53.8	4.2	75.2	6.1	74.8	5.8
전체	183.9	23.6	131.0	−3.4	192.3	5.0	186.0	3.7

주: 1)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2)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 2014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18]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FY2013 감소세에서 성장세로 전환됨에 따라 FY2013보다 0.5%p 높은 12.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3보다 0.4%p 상승한 7.5%, 손해보험 침투도는 0.1%p 상승한 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표 Ⅱ-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2),3)]	2014(F)[2),4)]
생명보험	7.0	7.0	9.0	7.1	7.5
손해보험	4.4	4.9	5.4	4.9	5.0
전체	11.3	11.9	14.4	12.0	12.5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4) 2014(F)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18)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2014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19] 역시 수입보험료 성장세 전환으로 2013년에 비해 11만 8,000원이 늘어난 368만 8,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20만 4,000원, 148만 4,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Ⅱ-3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3]	2014(F)[5]
생명보험	1,698	1,765	2,306	1,538(2,162)	2,204
손해보험	1,069	1,225	1,371	1,070(1,408)	1,484
전체	2,767	2,989	3,677	2,608(3,570)	3,688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4) 괄호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5) 2014(F)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랑 연구원)

19)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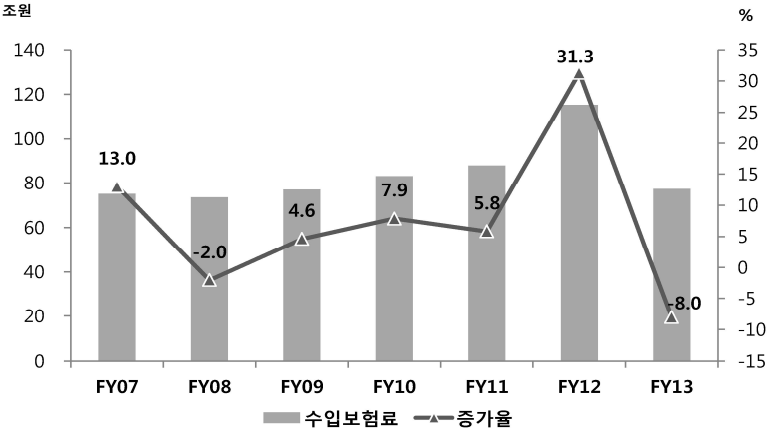
2.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개요

■ FY2013[2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중 생존,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 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0%[21] 줄어듦.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세제개편[22]의 영향으로 전년도 급등했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0.6% 감소함.

그림 Ⅱ-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의 9개월간임.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25.7% 증가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2013년 말까지 60%로 상향

20)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FY2013은 2013년 4월~12월로 9개월간임. 또한 12월에 진입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실적이 포함됨.
21) 2013년 10월 기존전망 당시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정치는 -3.8%임.
22) 2012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시행 전 일반 저축성보험 가입 수요가 급증하였음.

조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보험료가 증가함.

- 한편 경기회복세 지연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해약률은 7.2%로 2008년 이후 하락추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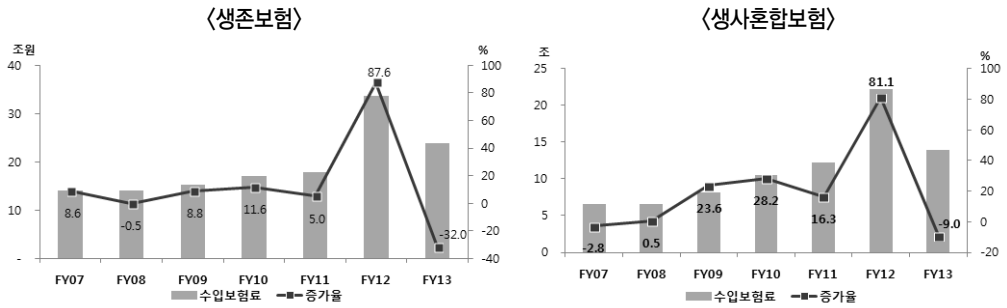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혜택 축소와 저금리에 따른 저축성보험 성장세 둔화로 2.4% 성장에 그칠 전망임.

-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전략에 따라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 건강보험 등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23]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인센티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들어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24] 혜택이 축소된 것은 저축성보험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3년 10월,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4.4%로 전망하였으나 저축성보험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함.

그림 Ⅱ-2 저축성보험 종목별 추이



23)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
24) 2013년 소득세법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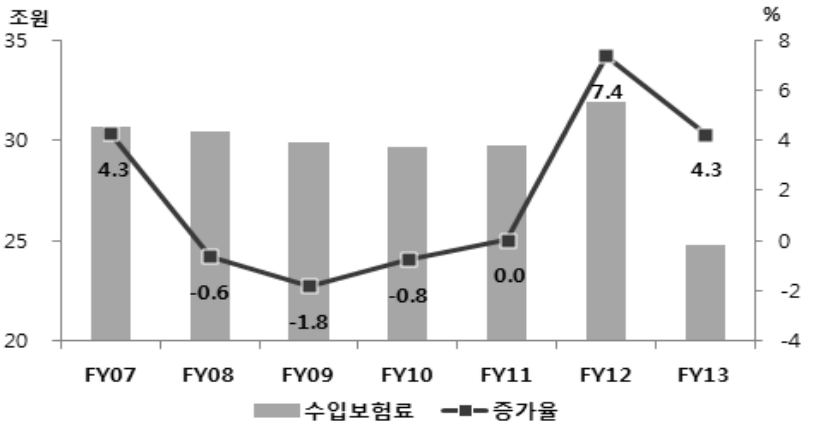
2) 개인보험

〈보장성보험[25]〉

■ FY2013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과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유지율도 안정되어 전년동기대비 4.3% 성장을 기록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7 이후 5년 만인 FY2012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그림 Ⅱ-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저축성보험으로 편중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3.3%, 4.8% 증가함.

25)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 2014년 보장성보험은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로 6.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장성보험 해약률은 낮아지는 모습(FY2008 11.4% → FY2012 9.3%)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이외에도 보장이 강화된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신계약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4년 보장성보험이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라 이를 6.9%로 상향 조정함.
  - 다만 불투명한 경기회복 여부가 보장성보험 성장세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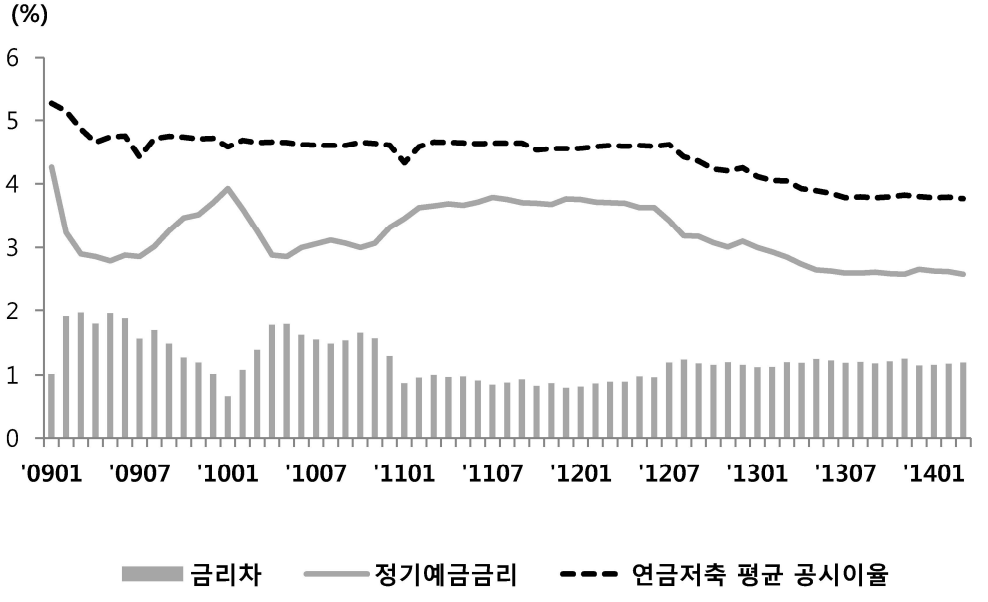
〈저축성보험[26]〉

■ FY2013 저축성보험은 2012년 8월 세제개편으로 인한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큰 폭의 감소세(-17.2%)를 나타냄.

- FY2013 생사혼합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가 49.4%, 수입보험료가 9.0%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법개정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도변경 전 가입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FY2012 8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27]와 세제혜택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

26)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포함함.
27) 2012년 중반 이후 시중금리 하락으로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약 1%p 높은 수준이 최근까지 유지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이 지속되었음.

그림 Ⅱ-4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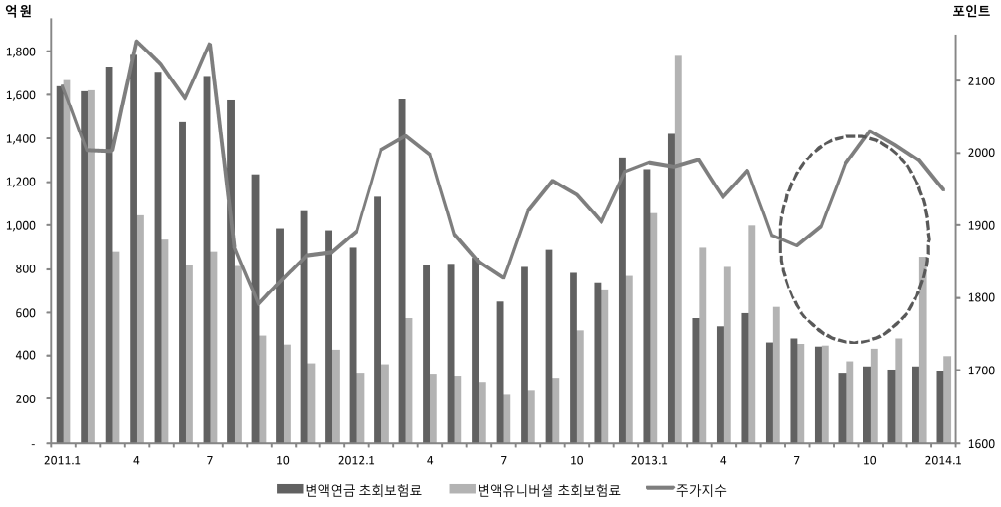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2년 8월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발표되면서 FY2012 87.6% 증가한 이후 FY2013에는 초회보험료가 69.7%, 수입보험료가 32.0% 감소함.

- FY2012 하반기 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났던 변액저축성보험[28] 수입보험료는 FY2013 0.9% 감소하였음.
  - 특히 FY2013 중반 이후 주가 회복과는 상관없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28)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임.

그림 Ⅱ-5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 2014년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 소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에도 불구하고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으로 인해 0.5% 감소가 전망됨.

- 생존보험 중 연금저축은 세제혜택 축소로 매력도가 떨어졌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상대적 세제혜택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변액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가에 대한 민감도 약화로 감소하고 있어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이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 소멸, 저금리 환경,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 등으로 4.6% 성장할 것으로 2013년 10월 전망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전망치를 5.1%p 하향함.
  - 이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운용이율 하락으로 보험회사들이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과 변액 보험 판매부진 현황을 반영한 것임.

- 다만 상대적 비과세 혜택부각, 연금저축 활성화 정책 시행 여부, 환급률을 높인 온라인 후취형 변액보험 판매 등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Ⅱ-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년(기존전망)		2014년(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248,094	4.3	345,067	4.3	352,157	6.9
저축성	448,383	-17.2	747,184	4.6	662,928	-0.5
개인계	696,477	-10.6	1,092,251	4.5	1,015,085	1.9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3) 단체보험

■ FY2013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7% 성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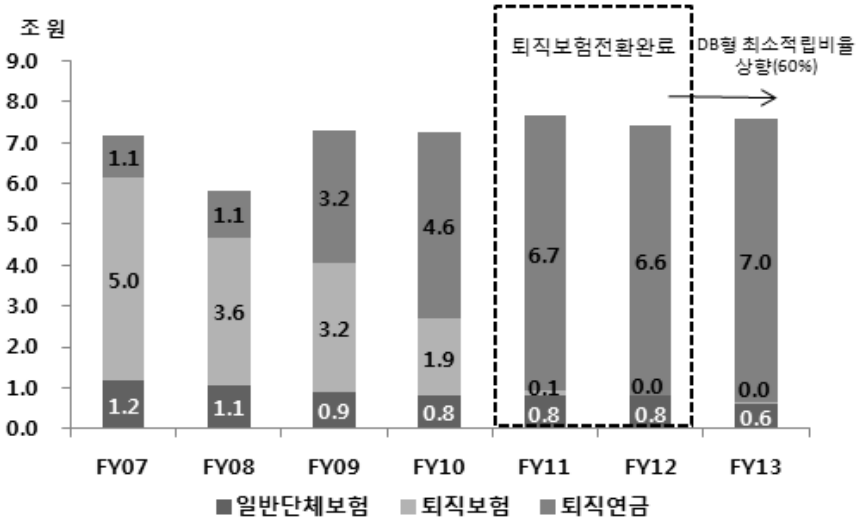
● FY2013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27.5% 성장하였으나 FY2013은 업계 결산월이 포함된 3분기 실적임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성장률은 5.3%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이 2013년 12월말까지 60%로 상향조정[29]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2013. 12. 31까지 60%, 2014. 1. 1~2015. 12. 31까지 70%, 2016. 11~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 또한 저금리 지속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함으로써 기업의 추가적립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 퇴직연금 가입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만큼 추가적립을 해야 함.
  - 저금리 지속에 따라 퇴직연금자산 운용수익률이 하락(2012년 4.7% → 2013년 3.9%)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저보증이율(원리금 보장형)과의 차이만큼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이 생김.
- 한편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5%의 증가세로 돌아선 후 FY2013 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함.

그림 Ⅱ-6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 2014년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7.3%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률이 70%로 상향되는 2015년 말까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기존 계약에 의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3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77.3% 수준으로, 2013년 3월 75.5%보다 1.8%p 상승하는데 그쳐 신규가입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30]
- 또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여전히 부진한 것[31]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시장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임.

● 당초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요인 부재로 단체보험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저금리 지속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보험료 납입 등으로 4.4%p 상향조정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에 따라 2013년 12월 말 전년동월 대비 초회보험료는 87.6%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과 저금리 지속에 따른 추가납입이 예상되어 전망치를 조정함.

표 Ⅱ-5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년(기존전망)		2014년(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	696,477	-10.6	1,092,251	4.5	1,015,085	1.9
단체	75,891	25.7	78,318	2.9	96,226	7.3
합계	772,367	-8.0	1,170,569	4.4	1,111,311	2.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30)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2014. 5. 15), 2014년 3월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게시.
31) 2014년 3월 말 중소기업(300인 미만) 퇴직연금 도입률은 15.3%임.

3. 손해보험

〈손해보험 개요〉

■ FY2013[32] 손해보험[33]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세가 둔화되고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도 저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4.2%[34] 증가에 그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5.6% 증가하여 증가율이 두자리 수에서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2012년 8월 세제개편안[35]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 약화 등으로 3.1% 증가에 그쳤으며,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기업의 추가적립 부담 증가 등으로 9.8% 늘어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지속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감소하였고 특종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체 1.5% 성장에 그침.

■ 2014년[36] 손해보험 대부분 종목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FY2013에 비하여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5.8%로 전망됨.

---

32)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FY2013 원수보험료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기준이며, 증가율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임.
33)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34) 2013년 10월 기존전망 당시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정치는 4.6%임.
35)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변경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음.
36) 2014년 원수보험료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 기준이며, 증가율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임.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된 데에는 제도개선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37]가 포함된 만큼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3보다 1.5%p 높은 7.1%로 전망됨.
-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항목 및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나 2012년부터 지속된 초회보험료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1.0% 감소가 예상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과 초회보험료 회복세가 더해져 14.5%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와 요율 인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제한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으로 2.2% 성장에 그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상 및 보증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증가폭이 크지 않아 5.1%증가가 전망됨.
- FY2013 일부 종목의 원수보험료 추정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기존 6.1%에서 5.8%로 하향 조정함.

37) 위에서 언급한 2012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와 이에 따른 장기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를 의미함.

표 Ⅱ-6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341,432	21.2	401,896	17.7	315,478	5.6	450,233	7.4	448,132	7.1
저축성	97,465	55.8	124,559	27.8	89,300	−4.3	127,235	4.6	126,015	4.5
상해·질병	146,045	11.4	166,786	14.2	142,314	16.1	208,153	12.2	209,967	12.5
재물	28,993	33.1	37,429	29.1	28,198	0.1	39,226	3.3	37,247	−0.6
기타[4]	68,929	3.9	73,122	6.1	55,666	1.6	75,619	2.1	74,904	1.2
연금부문	66,900	24.8	74,337	11.1	62,991	6.3	80,726	5.1	82,797	6.0
개인연금	34,273	38.8	41,489	21.1	31,829	3.1	46,294	6.7	42,015	−1.0
퇴직보험	835	−84.2	9	−	10	−	−	−	−	−
퇴직연금	31,791	34.6	32,840	3.3	31,152	9.8	34,432	2.9	40,782	14.5
자동차	130,415	5.1	128,416	−1.5	97,435	0.4	132,621	2.3	131,663	2.2
일반손보	70,901	12.7	80,773	13.9	61,679	1.5	88,486	6.2	85,785	5.1
화재	2,636	−0.9	3,293	25.0	2,413	−2.9	3,286	0.1	3,160	−1.9
해상	8,699	12.7	8,230	−5.4	6,016	−10.7	8,538	6.8	7,934	5.7
보증	15,172	16.1	15,816	4.2	11,238	−4.8	16,566	6.1	15,894	4.2
특종[5]	44,394	12.5	53,433	20.4	42,012	5.6	60,096	6.4	58,797	5.6
전체	609,648	16.7	685,422	12.4	537,582	4.2	752,065	6.1	748,377	5.8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 FY2013 장기손해보험[38] 원수보험료는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6% 증가에 그쳤으며, 그 동안 계속된 두 자리수의 고성장 흐름이 한 자릿수로 둔화됨.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방안의 영향으로 FY2012 27.8% 고성장하였으나, FY2013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4.3% 감소함.
  - 제도시행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FY2013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6.2% 감소함.
- 장기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39]의 영향으로 늘어났던 신규가입 계약의 계속보험료가 꾸준히 유입되어 전체 16.1% 증가함.

그림 Ⅱ-7 저축성 및 상해 · 질병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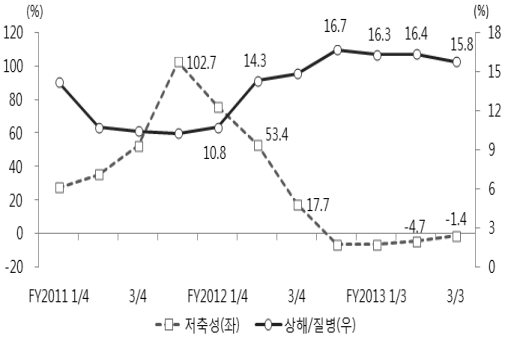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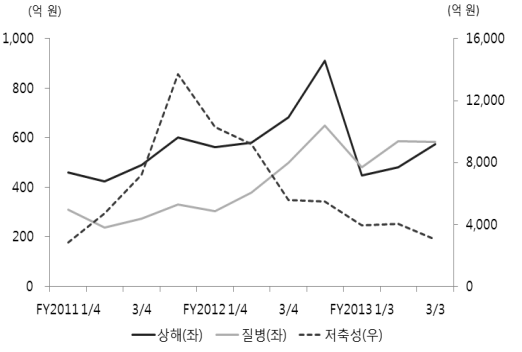


그림 Ⅱ-8 분기별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8) FY2013 기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이며,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이 각각 25.7%와 19.4%를 차지함.
39) 2013년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됨.

- FY2012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제도변경 이전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 각각 38.4%, 58.9% 증가함.
- FY2013 장기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17.6% 감소하였으나,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신규수요 감소폭이 작아 40.6% 증가함.

■ 2014년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성장으로 전체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저축성보험은 타금융권 대비 금리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다소 회복할 것이나 이전과 같은 고성장은 어려워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으로 급증한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어 증가율이 FY2013 16.1%에서 2014년 12.5%로 낮아질 것임.

- 단, 장기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작고 수요확대 요인[40]도 존재하여 2014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인 7.4%에서 7.1%로 0.3%p 하향 조정함.

- 당초 전망에서도 장기 재물보험과 기타 보험의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였으나 최근 둔화 추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 전망치를 기존에 비하여 각각 3.9%p, 0.9%p 하향 조정함.

40)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간병보험 시장 확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실적 개선.

표 Ⅱ-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341,432	21.2	401,896	17.7	315,478	5.6	450,233	7.4	448,132	7.1
저축성	97,465	55.8	124,559	27.8	89,300	−4.3	127,235	4.6	126,015	4.5
상해·질병	146,045	11.4	166,786	14.2	142,314	16.1	208,153	12.2	209,967	12.5
재물	28,993	33.1	37,429	29.1	28,198	0.1	39,226	3.3	37,247	−0.6
기타[4]	68,929	3.9	73,122	6.1	55,666	1.6	75,619	2.1	74,904	1.2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FY2013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41]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퇴직연금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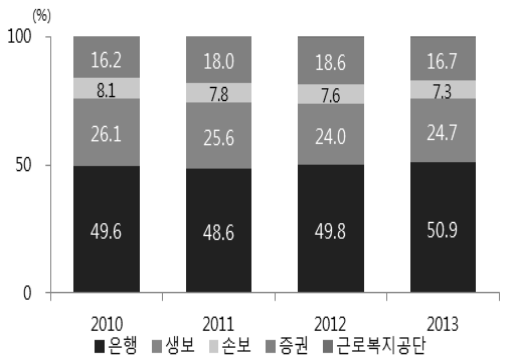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42]에 힘입어 FY2011과 FY2012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으나, 이와 같은 효과가 줄어들고 연금저축상품 수수료가 인하[43]되어 FY2013 3.1% 증가에 그침.

41)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 말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에 포함됨.
42) 2011년 1월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43)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44]이 높아진데다 운영수익률 하락으로 기업의 추가적립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9.8% 증가함.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각 연도 말(3/4분기)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실적이 2013년 말(3/3분기)에는 42.3% 증가하였음.[45]
  - 단, 금융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의 경우 2013년 은행과 생명보험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과 증권은 감소함.

그림 Ⅱ-9 연금부문 초회보험료 추이

그림 Ⅱ-10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금감원.

■ 2014년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개인연금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전체 6.0%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2011년 이후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도 신규수요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2013. 12. 31까지 60%, 2014. 1. 1~2015. 12. 31까지 70%, 2016. 11~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45)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납입이 12월에 이루어져 연말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 가운데 12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46] 혜택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3년 말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회복세를 보인데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높아지는 제도변화 요인 등으로 14.5% 증가가 전망됨.

표 Ⅱ-8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부문	66,900	24.8	74,337	11.1	62,991	6.3	80,726	5.1	82,797	6.0
개인연금	34,273	38.8	41,489	21.1	31,829	3.1	46,294	6.7	42,015	-1.0
퇴직보험	835	-84.2	9	-	10	-	-	-	-	-
퇴직연금	31,791	34.6	32,840	3.3	31,152	9.8	34,432	2.9	40,782	14.5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 5.1%보다 0.9%p 상향 조정함.

- 개인연금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변화를 감안하여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기존에 비하여 7.7%p 하향 조정함.
- 퇴직연금의 경우 예상보다 상승한 2013년 말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실적치와 2014년 1/4분기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고려하여 2014년 전망치를 기존에 비하여 11.6%p 상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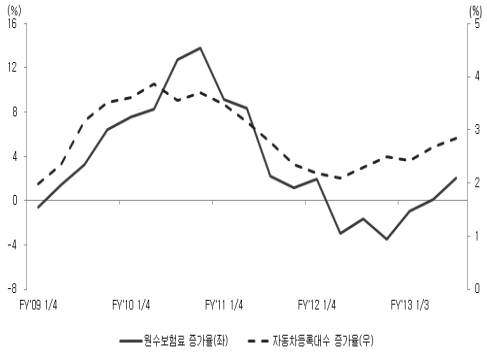
46) 2014년부터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

〈자동차보험〉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상승하였으나 대당 경과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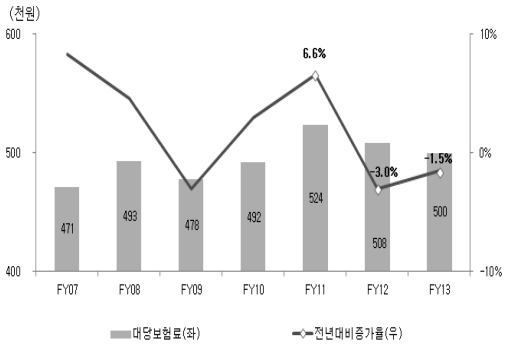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수입차 판매 증가와 자동차 내구성 증가에 따른 폐차 감소[47]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Ⅱ-11 원수보험료/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그림 Ⅱ-12 대당 경과보험료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대당 경과보험료는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 특약 확대 등 할인형 상품 증가로 감소함.

4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7. 11),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돌파가 눈앞에".

■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와 요율 인상 등으로 증가할 것이나, 제한적인 보험료 인상폭 등으로 증가율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등록대수 월별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14년에 들어서면서 손해율이 높은 영업용, 업무용 자동차의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에도 주행거리 연동특약과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온라인 판매증가도 전망됨.

표 Ⅱ-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30,415	5.1	128,416	-1.5	97,435	0.4	132,621	2.3	131,663	2.2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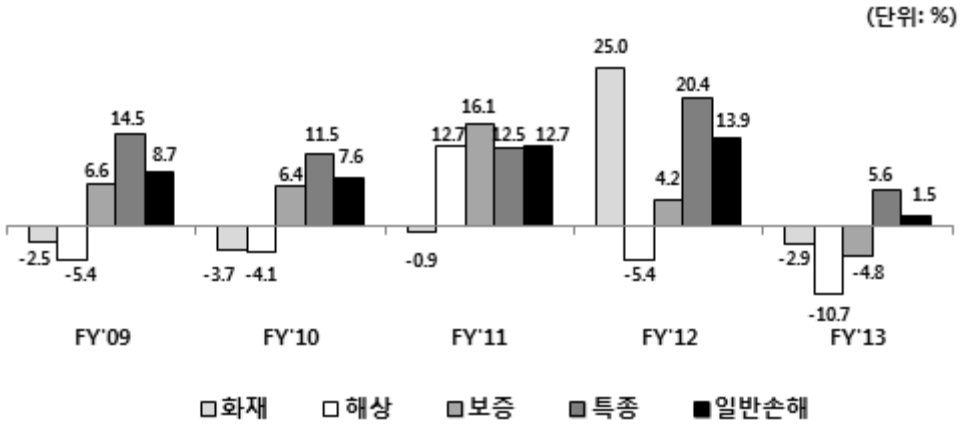
- 당초 예상보다 할인형 상품 증가 영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0.1%p 하향 조정함.

〈일반손해보험〉

■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해상, 보증보험의 감소와 특종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1.5% 성장에 그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무가입 수요[48]가 특종보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분산되었고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2.9% 감소함.

그림 Ⅱ-1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해운업황 부진 등으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 10.7% 감소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의 저성장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 등으로 4.8% 감소함.
- 특종보험의 경우 기술보험과 상해보험 부진 등으로 5.6% 증가하는데 그침.

48)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해당 법률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의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 약화와 다른 보험[49]으로의 물건이탈 추세 지속으로 2013년보다 1.9% 감소할 전망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해운업 및 조선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선박보험의 저성장이 예상되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적하보험 회복 등으로 5.7%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부진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등으로 이행 보증보험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부진이 예상되나 전년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4.2% 증가가 예상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종합보험, 상해보험 등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기술보험 부진이 지속되면서 5.6%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임.
  - 종업원 복지확대를 위한 기업의 단체 상해보험 수요 증가 및 기업성 종합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일반손해보험 일부 종목의 FY2013 원수보험료 실적이 경기둔화 등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전망치를 기존 6.2%에서 5.1%로 하향 조정함.
  - 해운업 및 조선업 침체 심화로 해상보험 성장률 전망치를 6.8%에서 1.1%p 하향 조정하였고, 보증보험도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1.9%p 하향 조정함.

49)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 재물 및 통합형보험.

표 Ⅱ-10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보	70,901	12.7	80,773	13.9	61,679	1.5	88,486	6.2	85,785	5.1
화재	2,636	−0.9	3,293	25.0	2,413	−2.9	3,286	0.1	3,160	−1.9
해상	8,699	12.7	8,230	−5.4	6,016	−10.7	8,538	6.8	7,934	5.7
보증	15,172	16.1	15,816	4.2	11,238	−4.8	16,566	6.1	15,894	4.2
특종[5]	44,394	12.5	53,433	20.4	42,012	5.6	60,096	6.4	58,797	5.6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